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對校와 校勘 研究

A Comparative Analysis and Textual Compare
of the *Sinpyeon jejong gyojang chongnok*

朴 鎔 辰 (Park, Yong-Jin)*

◁ 목 차 ▷

- | | |
|---------------------------------|---------------------------|
| 1. 緒 言 | 3.1 「正保寫本」의 현황과 서지 |
| 2. 『新編諸宗教藏總錄』 「安元寫本」의
書誌와 校勘 | 3.2 「正保寫本」의 교감 기록 |
| 2.1 「安元寫本」의 書誌 | 4. 『新編諸宗教藏總錄』 校勘 |
| 2.2 「안원사본」의 교감기 | 4.1 교감범례 |
| 2.3 「안원사본」의 교정기 | 4.2 『新編諸宗教藏總錄』 對校 및
校勘 |
| 3. 『新編諸宗教藏總錄』 「正保寫本」의
書誌와 校勘 | 5. 맺음말
<참고문헌> |

< 초 록 >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현전 最古本인 「안원사본」(1176)의 定本化를 위하여 正保寫本(1645), 元祿刊本(1693), 大正新修大藏經本(1928), 韓國佛教全書本(1979) 등 5종을 교감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安元寫本」의 書誌와 校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현전 最古本은 일본 京都 高山寺에 전존하는 安元 2년(1176) 明空의 필사본이다. 「安元寫本」은 明空의 筆寫記가 있고, 권제3의 論部 「順正理論」 이하의 필체는 다소 차이가 있어 다른 필사자를 상정할 수 있다. 또한 본문에는 다수의 교정 사례가 있는데, 誤字 校訂, 누락 追記, 기타 교정 기호가 활용되었으며, 본고에서는 121건의 교정 내용을 정리하였다.

「正保寫本」은 「安元寫本」을 저본으로 正保 2년(1645)에 永辨이 필사한 것이다. 「正保寫本」은 「安元寫本」의 교정 기록을 반영하는 한편 自體 校正을 행하였는데, 未判讀 표시 및 誤字 校訂, 誤記에 대한 위치 변경, 章疏名 위치에 대한 校正 등이다.

『新編諸宗教藏總錄』의 대교와 교감은 저본과 교본을 측차 대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교장총록」의 본문 내의 異同 및 字句의 錯落만 제시하고, 評注는 校本間 相違가 있는 약 90여 종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교감하였다.

要語: 신편제종교장총록, 안원사본, 정보사본, 원록간본, 의천

* 能仁大學院大學校 助教授(pyj04667@hanmail.net)

접수일: 2016년 9월 6일 최초심사일: 2016년 9월 12일 심사완료일: 2016년 9월 23일

<ABSTRACT>

The oldest remaining edition of *Sinpyeon jejong gyojang chongnok* is the manuscript version transcribed in the Angen era (安元 2年, 1176). In an effort to set forth the standard text of *Sinpyeon jejong gyojang chongnok* based on the Angen-manuscript (安元寫本), this study aims to perform comparative analysis and textual compare of the former with four other editions: the Shōhō-manuscript version (正保寫本, 1645), the Genroku edition (元祿刊本, 1693), the Taishō Shinshū Daizōkyō version (大正新修大藏經本, 1928), and the Hanguk bulgyo jeonseo version (韓國佛教全書本, 1979). Major findings are as follow.

The Angen-manuscript is currently preserved at Kosan-ji in Kyoto. Baed on the transcription record attached at the end of the fascicle, it was transcribed by Meiku (明空) in the 2nd year of the Angen era (1176).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writing style of the latter part of the third fascicle, i.e. after the entry of Shunzhengli lun, quite differs from that of the other parts, it is possible to presume an additional transcriber. Many cases of proofreading, including correction of typos, addition of omitted letters, and other various uses of proofreading marks, are found across whole parts of the manuscript ; and total 121 cases are listed in this study.

The Shōhō-manuscript is a re-transcribed version based on the Angen-manuscript, and it was transcribed by Eben (永辨) in the 2nd year of the Shōhō era (1645). The Shōhō-manuscript applied proofreading marks seen in the Angen-manuscript, and also added its own version of proofreading notes that include marks for illegibility, correction of typos, and marks for trans-location of letters or titles, etc.

For comparative analysis in this study, I carried out word-for-word compare of the Angen-manuscript with four other editions ; represented differences of the text, and mistakes and omissions of letters or words ; and provided critical annotation for over ninety cases of noticeable disparity between compared editions of *Sinpyeon jejong gyojang chongnok*.

Key words: *Sinpyeon jejong gyojang chongnok*, Angen-manuscript, Shōhō-manuscript version, Genroku edition, Uicheon

1. 緒 言

『新編諸宗教藏總錄』은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동아시아의 불교장소를 수집하여 1090년에 편찬한 教藏의 총목록이다. 의천의 編纂書로 教藏의 章疏 목록인 『新編諸宗教藏總錄』(이하, 『教藏總錄』)의 초기연구는 大屋德城이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高麗續藏雕造攷』라는 단행본을 발표하면서, 書誌的 고찰과 고증을 통하여 『教藏總錄』 편찬과 雕造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¹⁾ 국내의 연구는 『教藏總錄』의 편찬 의의에 대해 章疏 목록의 효시인 점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教藏總錄』의 분류체계와 教藏의 간행에 주목하였다.²⁾ 이후 연구는 위의 분류기준을 수용하는 한편 종파별 장소 분류나 綱目的 분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으로 이어졌다.³⁾ 최근 고려대장경의 연구와 함께 교장도 주목되어, 교장의 연구현황과 전망, 교장의 가치와 의의를 밝히면서 향후 조사연구방향 및 DB화의 과제, 사상사적 의의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교장총록」의 현전 最古本은 일본 京都 高山寺에 전존하는 安元 2년(1176)의 필사본(이하, 「安元寫本」)이다. 이 고산사 소장 『新編諸宗教藏總錄』(이하, 「교장총록」) 즉 「安元寫本」에는 다수의 文內 교정이 이루어져 있다.⁴⁾ 이를 저본으로 고산사의 永辨이 正保 2년(1645)에 필사한 것이 「正保寫本」이며, 이 또한

-
- 1) 大屋德城, 『高麗續藏雕造攷』(日本 東京: 便利堂, 1936).
 - 2) 金庠基, “大覺國師義天에 對하여,” 『國史上的 諸問題』(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59). ; 『東方史論叢』(서울: 서울대출판부, 1984 개정판). ; 趙明基, 『高麗 大覺國師와 天台思想』(서울: 東國文化社, 1964). ; 鄭駟謨, 『高麗佛典目錄研究』(서울: 論叢刊行委員會, 1990). ; 林屋友次郎, “海東有本現行錄,” 『佛書解說大辭典』(日本, 東京: 大同出版社, 1975).
 - 3) 박용진, 『의천 그의 생애와 사상』(서울: 혜안, 2011). ; “高麗 義天撰『新編諸宗教藏總錄』과 동아시아의 華嚴 章疏,” 『한국학논총』 42(2014. 8). ;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 編纂과 華嚴 및 天台章疏,” 『中央史論』 제22호(2005. 12). ; 金聖洙, “고려 諸宗教藏의 가치와 의의에 관한 연구,” 『불교학연구』 제30호(2011. 6). ; 서수경,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의 佛敎書誌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4). ; 최애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성체계 고찰,” 『서지학보』 제31호(2007. 12). ; 임혜경,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찬과 그 의의,” 『韓國史論』 제58집(2012).
 - 4) 高山寺藏,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卷表紙 見出紙에 ‘重要文化財 02046 義天錄 卷第一二 三 2권 高山寺’.

誤寫의 경우 본문내에 正字를 기입하거나 삭제하면서 교정하였다. 다음의 『원록 간본』은 落下書林 井上忠兵衛가 元祿 6년(1693)에 목판본을 간행하였는데, 卷首에는 毘盧正宗 西湖比丘 白玄天龍이 序文을 썼고, 卷尾에는 安樂壽院 沙門 運敞의 跋文이 있다. 이 발문에 의하면 그 저본은 1644년(寬永 21)에 梅尾 法鼓臺의 책을 가지고 禪堂院에서 安樂壽院 運敞이 필사한 것이다.⁵⁾ 이 책은 紙背에 기록된 法華章疏 1종을 포함하여 전체 장소의 수를 1,010종으로 정리하여 간행한 것으로 충손이 심하였기 때문에 누락된 곳이 있고, 특히 추정하여 보충하였기 때문에 그 전거를 알 수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大屋德城는 이를 『安元寫本』과 대조하여 오자나 낙자를 지적한 바 있다.⁶⁾ 이 『元祿刊本』은 『대정장』본을 비롯한 제본에 저본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대정장』본은 大谷大學 소장 『元祿刊本』을 저본으로 하고 『安元寫本』을 갑본으로 대교하여 간행한 것이다.⁷⁾

일본에서의 『교장총록』 간행은, 末松保和가 1933년에 京城에서 『교장총록』을 번각하여 간행하였는데,⁸⁾ 이 역시 『元祿刊本』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 大屋德城은 1936년에 『安元寫本』을 영인하고 해제하면서 『正保寫本』, 『元祿刊本』의 대교를 행하였고, 『安元寫本』의 전체를 수록하고, 『正保寫本』의 전체에 『元祿刊本』의 일부를 수록하였다.⁹⁾ 이를 통하여 관련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흑백의 영인본이기 때문에 『安元寫本』의 字體의 濃淡이나 교정기호의 색상 등이 나타나지 않아 원본에 대한 서지조사는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교장총록』 교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元祿刊本』을 저본으로 한 『대정장』의 자료를 수록하였고, 그 교감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우선 김두중이 부록으로 수록하였고,¹⁰⁾ 이를 참고한 정필모는 『대정장본』을 저본으로 수록하였다.¹¹⁾ 『한국불교전서』 역시 『대정장본』을 저본으로 『안원사본』을 대교

5) 『新編諸宗教藏總錄』, 洛下書林 井上忠兵衛, 元祿 6년(1693).

6) 大屋德城, 『新編諸宗教藏總錄』解説(便利堂, 1936), 1-20.

7) 『新編諸宗教藏總錄』, 『大正藏』 권55. 『大日本佛教全書』 제1책에도 수록되어 있다.

8) 『新編諸宗教藏總錄』(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1933).

9) 大屋德城, 『新編諸宗教藏總錄』諸本對照(便利堂, 1936).

10) 김두중,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탐구당, 1974).

11) 鄭駱謨, 『高麗佛典目錄研究』(서울: 論叢刊行委員會, 1990), 223-245.

하여 일부 교감하였지만 「대정장」의 오류를 답습하였다.¹²⁾ 최근 임혜경은 「안원사본」, 「정보사본」, 「원록간본」의 3본으로 일부 대교를 행하였다.¹³⁾ 이상의 간행본은 「안원사본」이 아닌 「원록간본」이나 이를 저본으로 한 「대정장본」을 활용하였고, 철저한 校勘을 행한 것은 아니었다.

본고는 「교장총록」의 현전 최고본인 「안원사본」을 定本化하기 위하여 諸本對校를 통한 校勘을 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교장총록」의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향후 동아시아 불교 교학을 연구함에 있어 본 연구가 종파별 교학사상의 기준이 되는 주석서 즉 章疏의 현황을 제공하는 한편 사상적 현황과 수준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新編諸宗教藏總錄』 「安元寫本」의 書誌와 校勘

2.1 「安元寫本」의 書誌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현전 最古本은 일본 京都 고산사에 전존하는 安元 2년(1176) 明空의 필사본이다. 『新編諸宗教藏總錄』 安元 2년 필사본(이하, 「安元寫本」)은 ‘卷第一’ 1권과 ‘卷第二와 卷第三’ 1권, 모두 2권의 卷子本이다. 「安元寫本」의 크기는 紙高 28.0cm, 廣高 23.9cm이며, 卷第一은 10張 卷第二와 卷第三은 17張의 길이가 각각 다른 종이를 이어 붙였다.¹⁴⁾ 「安元寫本」은 「春記」의 斷簡 및 古文書의 紙背에 필사된 것으로 「春記」와 고문서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권제2의 紙背에는 墨書로 ‘永安二年三月十八日’이 기재되어있지만, 일

12) 『韓國佛教全書』 권4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79).

13) 林惠憬,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 편찬과 그 의의,”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14) 권2의 경우 1枚의 紙張이 41.8cm(第1張), 39.3cm(第3張), 54.4cm(第5張), 55.7cm(第6張)였다. 이렇게 길이가 차이가 있는 이유는 여러 문서를 이어 붙여 紙背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大屋徳城(1936), 2쪽에서 전체길이는 상권이 35尺8寸7分, 하권이 29尺1寸9分으로 제시하였다.

본의 해당 연호는 찾아지지 않아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安元寫本』의 구성과 체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新編諸宗教藏總錄序 海東傳華嚴大教沙門 義天叙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一 高麗沙門義天錄(此是草本俟後重廣如有漏略
 觀者恕之)

海東有本見行錄上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二 高麗沙門義天錄
 海東有本見行錄中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三 高麗沙門義天錄
 海東有本見行錄下

『安元寫本』의 구성은 서문으로부터 비롯하는데, 『新編諸宗教藏總錄序』는 序題와 내용의 일부가 결락되었고, 卷第一의 卷首題와 卷尾題도 일부 缺落과 闕字가 있다. 본문의 장소목록의 배열은 경전명, 장소명, 권수, 내용주기, 찬자명의 순서이다. 경전명과 장소명은 科條 즉 대항목과 소항목에 해당하며, 경전명은 계선의 상단에空格없이, 장소명은 경전명과 달리 변란 상단으로부터 2字의 空格을 두어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印記: 高山寺
 筆寫記
 卷第一(卷尾題下)
 安元二年丙申五月晦日以仁和寺花嚴院法橋景雅/御本書寫了 明空
 卷第三(卷尾題下)
 安元二年丙申六月四日以仁和寺花嚴院/法橋御本書寫了 明空/以他本校合了(手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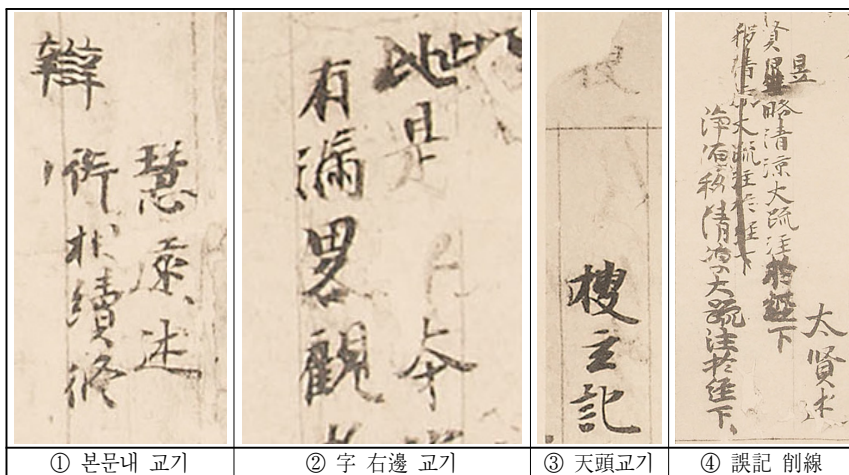
소장인은 卷1과 卷2의 卷首題 아래에 四角朱印으로 ‘高山寺’가 날인되었다. 필사기는 卷第一과 卷第三의 卷尾題 다음에 기록되어 있다. 이 『安元寫本』은 明空이 安元二年 五月晦日부터 六月四일까지 5일에 걸쳐 仁和寺 花嚴院의 法橋景雅의 소장본인 『新編諸宗教藏總錄』을 빌려 서사한 것이다.

2.2 「안원사본」의 교감기

「安元寫本」은 明空의 필사기가 있지만, 권제3의 論部 「順正理論」 이하의 필체는 다소 차이가 있어 또 다른 필사자를 상정할 수 있다. 또한 본문에는 다수의 교정 사례가 찾아지는 바, 明空에 의한 수정인지? 또 다른 필사자의 수정인지? 아니면 후대의 교감기인지? 현재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확정할 수 없지만 교감을 위하여 교정 사례를 정리하고자 한다.

교정은 본문 안이나 天頭 그리고 地脚의 변란 밖에 校訂字를 기록하였다. 교정은 오자이거나 행초서로 기록되어있어 글자를 명확히 판독키 어려운 경우 정자로 표기하였다. 본문 교정 사례는 명공의 교정인지 서사자의 수정인지는 분명치 않다. 본문의 글자체와 校訂字體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후대의 누군가가 판독의 편의를 위하여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사례 1. 誤字 校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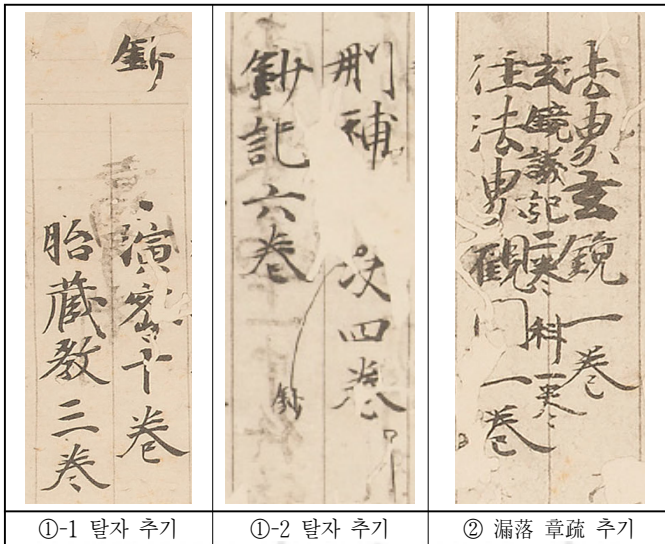


위의 ① 본문내 교기의 경우, ‘慧遠述辨相續修’의 ‘辨’字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좌측에 교정 대상이라는 목선 표시를 하고 상부에 ‘辯’을 기입하였다. 위의 ②는 글자의 우측에 正字를 표기하였고, ③은 天頭에 기입한 사례이다. 이 교정기가 원본 『新編諸宗教藏總錄』을 통한 교정인지 아니면 원본 「교장총록」을 답습하였는지? 아니면 후대에 다른 목록이나 자료를 확인한 결과를 반영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明空에 의한 필사가 권1과 권3에 수록되어 있지만 권3의 「順正理論」 이하의 필체는 전반부와 다른 점으로 미루어 明空이 아닌 제3자에 의해 보사되었고, 이때 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校訂字의 경우 필획이 굵고, 먹의 濃淡으로 보아 후대 가필로 추정된다. ④는 誤記를 목선으로 삭제한 誤記 削線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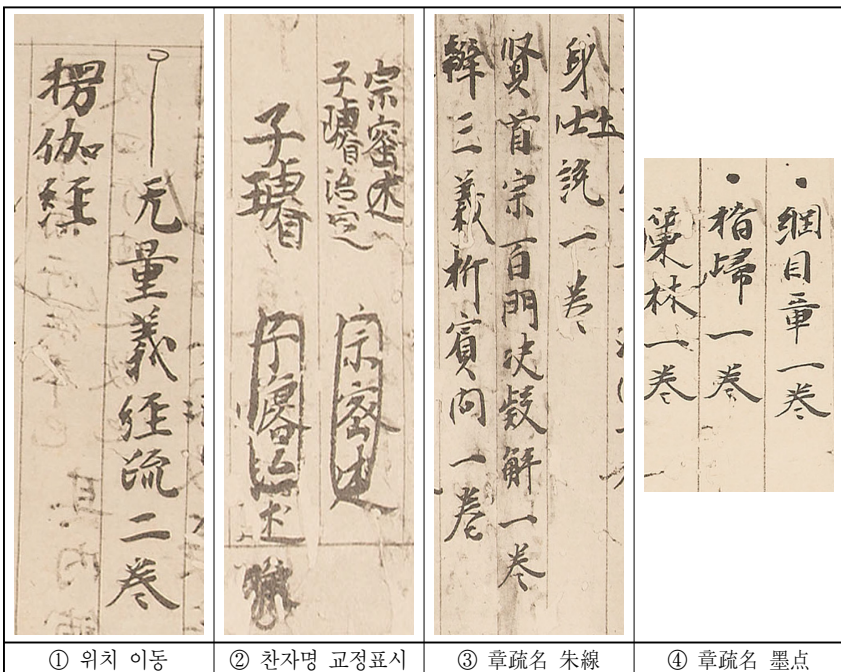
■ 사례2. 누락 추가

章疏名에 필자나 탈자가 있는 경우 또는 누락된 章疏는 해당 위치에 추가하였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경우 계선 위에 누락된 내용을 기재한 사례도 확인된다.



위의 ① 탈자추기는 추기 위치의 좌우에 기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校訂字의 기입 위치를 표시하고 天頭에 기재하였다. ‘密’字 아래에 기입 위치라는 표시(..)를 하고 대상자인 ‘鈔’字를 천두에 기록하였다. 위의 ② 漏落 章疏 추기의 사례는, 화엄경부 35번인 ‘玄鏡議記二卷科一卷 德素述’은 ‘法界玄鏡’과 ‘注法界觀門’의 사이에 기입하였다.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추기한 셈이다. 교정을 위한 기입의 시기는 분명치 않은데, 필체와 먹의 농도에 차이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明空 또는 서사자의 수정을 추정할 수 있지만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사례 3. 기타 교정 기호



위의 ① 위치이동의 교정 기호를 살펴보면, 법화경부의 마지막에는 『無量義經』

‘疏二卷’이 있고, 위와 같이 작은 圓 표시까지 이동 교정부호가 있다. 『교장총록』의 장소 배열은 경명은 변란의 상단에 空格없이 기입하고, 章疏名은 상단에서 2字 간격을 띄우고 기록하였다. 이는 경명의 아래에 章疏名을 기입하여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안원사본』이 처음부터 誤寫였는지, 아니면 교정자의 판단인지는 분명치 않다. 원본의 오기가 아니라면 『無量義經』은 『법화경』과 함께 취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經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의천 역시 법화경부의 마지막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② 찬자명 교정 표시는 『금강반야경찬요』이며, 찬자명의 오류에 대해 교정 부분임을 묵선으로 표시한 교정 기록이 확인된다. 오류를 표시하고 바로 윗부분에 교정 찬자명을 기록하였다. ③ 章疏名 朱線은 모든 章疏名의 우측에 朱線을 표시하였다. 이 표시는 모든 장소명에 표시된 점으로 미루어 필사후 대교시 확인용으로 추정된다. ④ 章疏名 墨点은 일부 장소명의 상부에 표시되어있고, 그 활용은 분명치 않다.

2.3 『안원사본』의 교정기

『安元寫本』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교정의 기록을 그 자체에 남기고 있다. 그 교정의 기록은 장소 목록이 기재된 변란 내·외부의 불명확한 글자에 대해 정자를 기입하고, 오기가 있을 경우 삭제하였으며, 위치의 변경이 있을 경우 교정 부호를 표시하는 등 다양하다. 이러한 교정 기록은 후대의 『正保寫本』과 『元祿刊本』 등에 활용되었을 것이다. 『安元寫本』의 교정 기록은 <별표 1>로 말미에 수록하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교감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3. 『新編諸宗教藏總錄』 「正保寫本」의 書誌와 校勘

3.1 「正保寫本」의 현황과 서지

『新編諸宗教藏總錄』 「正保寫本」(이하, 「正保寫本」)은 고산사장 「安元寫本」을 저본으로 正保 2년(1645)에 영변이 필사한 것이다. 「正保寫本」은 1936년에 大屋徳城가 『新編諸宗教藏總錄』을 영인하여 출판하면서 말미에 附載한 것으로 실물대가 아닌 축소판에 해당한다. 이 「正保寫本」에 대하여는 실물을 조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지사항은 『新編諸宗教藏總錄』 附載 축소영인본과 기존의 연구를 중심으로 서술코자 한다.

「正保寫本」은 表題 「新編諸宗教藏總錄 上」, 「新編諸宗教藏總錄 中下」의 상중하 3권 2책이며, 일본 楮紙, 책 크기는 세로 9寸2分5釐, 가로 7寸이다.¹⁵⁾ 책의 장수는 서문 1장, 권1이 31장, 권2가 8장, 권3이 17장으로 모두 57장이다. 「正保寫本」의 구성과 체제는 「安元寫本」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우선 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新編諸宗教藏總錄序 海東傳華嚴大教沙門 義天叙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一 高麗沙門義天錄(此是草本俟後重廣如有漏略
 觀者恕之)
 海東有本見行錄上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二 高麗沙門義天錄
 海東有本見行錄中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三 高麗沙門義天錄
 海東有本見行錄下

「正保寫本」의 구성은 서문, 권제1, 권제2, 권제3으로 편성되었고, 권제1의 1책, 권제2와 권제3의 1책 도합 2책이다. 「安元寫本」은 권자본이기 때문에 분책되지 않았지만 권차 등의 배열은 동일하다. 「正保寫本」의 필사기의 주요사항은 다

15) 大屋徳城, 『新編諸宗教藏總錄』 解説 (便利堂, 1936), 4.

음과 같다.

① 所藏處 및 印記: 十無盡院

② 書寫記

卷第一(卷尾題下)

本云安元二年丙申五月晦日以仁和寺花嚴院法橋景雅御本書寫了 明空
于時正保二年三月廿七日以高山寺經藏本寫之了 栴尾僧永辨生歲卅

卷第三(卷尾題下)

安元二年丙申六月四日以仁和寺花嚴院法橋景雅御本書寫了 明空
于時正保二年三月廿九日以高山寺經藏御本寫之了 沙門永辨

③ 張次記

卷第一: 第一 終 三十一丁 於中坊□□書了

卷第三: 第三 十六 終 於中坊書寫之了

「정보사본」의 필사와 전승은 卷末의 필사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보사본」은 栴尾僧 永辨, 즉 고산사의 승려인 永辨이 高山寺의 經藏에 소장되어 있던 「안원사본」을 저본으로 正保 2년(1645)에 필사한 것이다. 이 사본의 장차는 각 장의 말미에 ‘第一 一丁’으로 표기되어 있고, 특히 권1과 권3의 말미에는 ‘於中坊書寫’라 하여 고산사의 中坊에서 서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보사본」의 所藏 사항은 「十無盡院」의 朱印記와 표지의 목서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¹⁶⁾ 「十無盡院」은 고산사의 부속 院으로 永辨이 「정보사본」을 서사한 후 어느 시기에 소장인을 찍어 수장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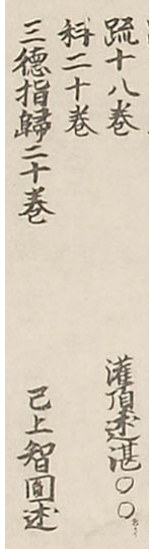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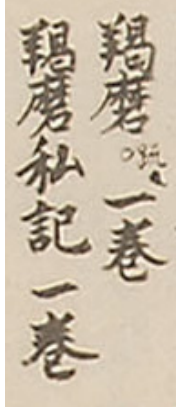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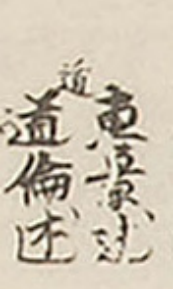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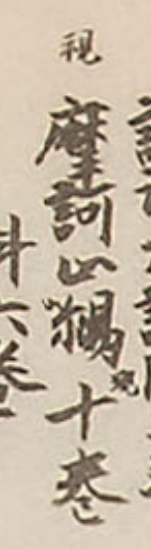
3.2 「正保寫本」의 교감 기록

「정보사본」은 「安元寫本」의 구성과 배열이 동일한데, 권수제, 경전명, 장소명, 권수, 내용주기, 찬자명 등의 위치도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충실하게 전사

16) 大屋徳城, 『新編諸宗教藏總錄』解説(便利堂, 193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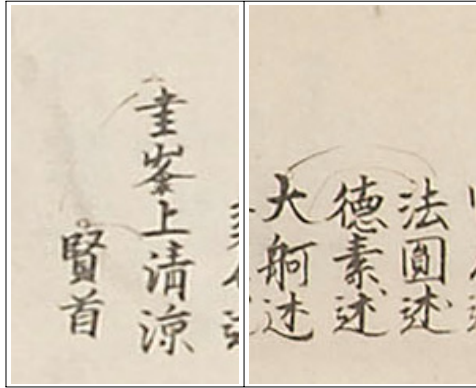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양본의 기재내용이 일부 차이가 있는데, 『安元寫本』의 교정 기록을 반영하는 한편 자체 교정을 행하였다. 『正保寫本』에는 誤寫 등에 의한 다수의 교정이 있다. 이러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 1. 未判讀 표시 및 誤字 校訂

 <p>疏十八卷 料二十卷 三德指歸二十卷</p> <p>灌頂遠港〇〇 已上智圓述</p>	 <p>羯磨私記一卷</p>	 <p>道倫述</p>	 <p>親摩訶山羯磨十卷</p>
① 未判讀表示	②-1 字右 교기	②-2 字右 교기	③ 字上 교기

위의 본문내 교기의 경우, 교정대상자의 좌측에 작은 원점을 표시하고 그 좌우에 교정자를 기입하였다. 또한 글자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字數만큼 원으로 표시하여 두었다.

■ 사례 2. 誤記 위치 이동 校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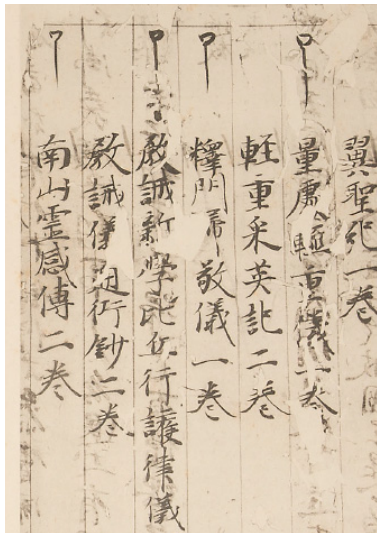


위의 자료는 『新編諸宗教藏總錄』 권제1 화엄경부의 ‘寄海東華嚴大德書一卷 圭峰上清涼’과 ‘修門人書一卷 賢首’의 찬자명 교정에 대한 것이다. ‘賢首’와 ‘圭峰上清涼’을 오기하였기 때문에 교정 부호를 붙여 위치를 변경한 셈이다. 다음의 사진은 『圓覺經』부의 ‘覺性樂二卷 大軀述, 玄議八卷 德素述, 解二卷 法圓述’이 『安元寫本』의 내용이지만 筆寫時 誤記한 것을 교정부호를 통하여 위치를 변경토록 하였다.

『正保寫本』(1645)은 『安元寫本』으로부터 469년 후대의 필사본이다. 특히 영변이 필사하던 당시에 蟲損이 심하여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正保寫本』은 『安元寫本』을 충실히 필사하였고, 다수의 교정기록이 있지만 철저한 교감이 아닌 판독 가능한 범위 내의 교정 기록을 남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紙背에 기록된 『注法華本跡不二門一卷 宗昱述』은 누락되었고, 이는 『元祿刊本』에서 편입되어 현행하고 있다.

■ 사례 3. 장소명 위치

『정보사본』은 「安元寫本」과 달리 다음의 章疏에 대해서는 경전명의 위치에 기재하였다.

<p>권2 量處輕重儀一卷 道宣述 釋門歸敬儀一卷 教誡新學比丘行護律儀一卷 南山靈感傳二卷 道宣述 釋門集僧軌度圖經一卷 道宣述 律部宗要一卷 권3 十四科一卷 道生述</p>	
① 대상 장소	② 「안원사본」

『정보사본』은 위의 7종에 대하여 「안원사본」과 달리 경전명의 위치에 장소명을 기재한 경우이다. 「교장총록」의 장소 배열은 경전명을 제시하고 관련 장소를 열거하는데, 경전명은 상변에 空格없이 기재하고, 장소는 상변으로부터 2-3字 空格을 두어 구분한다.

이상의 「정보사본」의 교정 기록을 정리하면, 첫째, 「안원사본」을 충실히 전사하였고, 둘째, 「안원사본」의 교정기록을 반영한 필사, 셋째, 不明字나 誤脫字에 대해서는 문내에 교정 기록을 남기고 있다. 다만, 「안원사본」의 紙背에 기록된 章疏를 수록하지 않은 점은 「원록간본」과의 차이점이다.

이하에서는 「安元寫本」과 「正保寫本」의 교정 기록, 그리고 「元祿刊本」 등을 대교하여 『新編諸宗教藏總錄』을 교감하고자 한다.

4. 「新編諸宗教藏總錄」校勘

4.1 교감범례

『新編諸宗教藏總錄』의 저본은 고산사 소장 「안원사본」이며, 對校本은 4종이다. 즉 고산사 所藏 「正保寫本」, 「元祿刊本」, 「대정신수대장경」본, 「한국불교전서」본이며, 그 저본 및 대교본의 표시는 安元寫本을 제시하고, 正保寫本(正), 元祿刊本(元), 大正新修大藏經本(大), 韓國佛教全書(韓), 필자 교감(案)으로 하였다.¹⁷⁾

교감은 저본과 교본을 축자 대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교장총록」의 본문 내의 異同 및 字句의 錯落만 제시하고 도표 내에서는 評注를 하지는 않았다. 參校本이 결락이 있어 글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능한 대교를 행하였고,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교감하였다. 다만 古今字, 異體字, 正俗字, 通假字 및 同意者는 대부분 교감하지 않았고, 인명 가운데 慧遠 등 「安元寫本」의 오류가 명백한 경우는 교감에 포함하였다.

4.2 「新編諸宗教藏總錄」對校 및 校勘

『新編諸宗教藏總錄』은 현전 최고본이 고산사장 「安元寫本」이므로 이를 정확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安元寫本」을 대본으로 기타 참고

17) 본고의 대본은 대만전자불전 Cbeta 수록 「대정신수대장경」본의 원문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체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대교 및 교감에는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신편제종교장총록』 화상 협조, 김명수 연구원의 대교 협조가 있었다. 이에 감사한다.

본을 활용하여 교감코자 하며, 이를 정리하면 <별표 2> 『新編諸宗教藏總錄』 對校 및 校勘과 같고, 校勘 기록은 <별표 2>의 연번에 따라 정리하였다.

『정보사본』과 『원록간본』은 후대의 사본과 간본이지만 결락과 오류가 다수 있고, 특히 『안원사본』의 충손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추정하여 기록하면서 그 이유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들 자료의 활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장소명 등의 교감을 행하며, 연번에 따라 축차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新編諸宗教藏總錄』 校勘記¹⁸⁾

總錄序. 『新編諸宗教藏總錄』의 서문은 『대각국사문집』에 수록되어있기 때문에 교감이 용이하며, 본고에서는 서문의 경우 『대각국사문집』에 따라 교감하였다. 예를 들면 『昔永平』은 충손에 따른 결락이지만 상단으로부터 3字的 결락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록간본』의 『漢明夢感』은 추정하여 補入한 것으로 오류에 해당한다. 서문은 『대각국사문집』에 수록된 서문을 따른다.

2. 大華嚴經 又略疏四卷 已上慧光 世稱緣述. 撰者名: 『續高僧傳』 권21 慧光傳에 “其華嚴涅槃維摩十地地持等 並疏其奧旨而弘演導 … 初在京洛任國僧都 後召入鄴綏緝有功 轉爲國統”이라 하였고, 『華嚴懸談會玄記』 卷18에는 “光統律師等者傳云慧光姓楊氏 … 其華嚴涅槃維摩十地地持地等並疏其奧旨 初在京洛任國僧教後轉爲國統故云光統”이라 하였다. 양서를 종합하면 慧光이 『화엄소』를 찬술하였음을 알 수 있고, 國統에 임명된 바 있어 光統이라고 칭한 것이다. 범명과 관련하여 ‘光緣’의 명칭은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緣’은 ‘統’의 誤寫 및 誤讀이다. 뒤의 79면 『廣釋義章一卷 光緣述』도 같다. 【교감】 大華嚴經 又略疏四卷 已上慧光 世稱 光統述

18) 교감기의 일련번호는 『新編諸宗教藏總錄』의 수록 장소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였으며, 『安元寫本』의 紙背에 수록된 장소를 포함하여 1,010부이다.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로 교감기를 포함하여, <별표 1> 『新編諸宗教藏總錄』 『安元寫本』의 校訂 기록과 <별표 2> 『新編諸宗教藏總錄』 對校 및 校勘은 화엄부만을 제시한다.

3. 䟽八卷 或四卷 慧遠述辯相續修. 撰者名: 辯相은 淨影寺에 주석하면서 강경하였고, 慧遠을 추승하여 강설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續高僧傳』 권12 辯相傳, “開皇七年 隨遠入輔 創住淨影對講弘通 … 追崇淨影仍就講說 又捨所遺圖遠形相 常存敬禮 用光先範”에서 알 수 있다. 【교감】 䟽八卷 或四卷 慧遠述辯相續修
7. 略䟽□□卷 已上 法藏述. 章疏名: 『화엄경약소』는 장소명이 일치하는 현전 자료는 잘 찾아지지 않는데, 『大正藏』(T.2754)에 찬자 미상의 『華嚴略疏』 권제3 『十地品初記』의 1권이 전존하며, 大英博物館藏 燉煌本(S.2694)에 해당한다. 아울러 燉煌寫本(北京本-0080)도 함께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⁹⁾ 『안원사본』의 잔획으로 권수를 추정한다. 【교감】 略䟽 十二卷 已上 法藏述
8. 刊定記二十八卷 慧苑述. 卷數: 慧苑의 『華嚴經略疏刊定記』는 內題 『續華嚴經略疏刊定記』로 『卍續藏』(X.0221)에 13권(권제1-5, 8-15)이 현존한다. 刊定記의 卷數에 대해서는 일본 전본 계통은 13권(권제1-5, 8-15)이 현존. 東大寺 2, 9, 13권, 京都大 4책 13권(『卍續藏』의 저본을 藏經書院에서 기증), 大谷大 14책본, 高山寺 권4(권자본), 龍谷大는 東大寺本 사진판 소장.²⁰⁾ 일본의 화엄종 장소 목록인 『華嚴宗章疏并因明錄』(914)과 『東域傳燈目錄』(1094)에는 ‘華嚴刊定記 十六卷’으로 기록되어 있다. 초기 기록인 『大唐大薦福寺故大德康藏法師之碑』에는 “門人宗一慧苑兩續遺藁 一師足二十軸 … 苑公成十六編”이라 하여 慧苑의 16권본을 추정할 수 있다. 당대의 16권본이 고려와 일본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권수의 차이가 발생하였겠지만 현재 확정할 단서는 명확치 않아 『교장총록』의 기록을 따른다. 【교감】 刊定記二十八卷 慧苑述
9. 刊定記纂釋二十□卷(或十三卷)(法說創□正覺再修). 卷數: 『정보사본』은 ‘六’, 『원록간본』은 ‘一’로 판독했다. 大谷大學藏寫本 『東域傳燈目錄』에 “同刊定記十六卷 新經京兆靜清寺惠苑師撰”이 있고, 이 사본 頭註에 “義天錄二十卷同纂釋二十一卷法說創造正覺再修”(『大正藏』 권55)라고 하여 권수를 제

19) 박용진, “高麗 義天撰 『新編諸宗教藏總錄』과 동아시아의 華嚴 章疏,” 『한국학논총』 42(2014. 8), 161.

20) 李惠英, 『慧苑撰『續華嚴略疏刊定記』의基礎的研究』(일본: 同朋舍, 2000).

시하였다. 이는 大谷大學藏寫本の 필사자가 「안원사본」이나 「원록간본」을 참고하여 註記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교장총록」의 편찬 당시에는 章疏의 권수가 분권으로 인하여 倍數가 된 사례가 다수이다. 「교장총록」에 수록된 ‘或卷’의 사례는 모두 63건이며 그 가운데 53건이 倍數 分卷이다. 또한 행간 과 「정보사본」의 판독 등으로 미루어 13권의 배수인 26권으로 추정한다. ▶創□: 唯識疏云 “敘理名述 先來有故 創作名造 今新起故, 述者 敘也 撰也 內錄藏教 外采羣書 言無不經 事無不古 纂敘文義 撰集成章 名之爲述 唯識疏云 敘理名述 先來有故 作故名造 今新起故”에 의거 ‘創作’을 ‘造’로 추정한다. 【교감】 判定記纂釋二六卷(或十三卷)(法說創作 正覺再修)

10. 疏二十卷 本十九卷今□第二 宗一述. 內容註記: 華嚴疏十卷 本是八卷今開第五卷并宗要均作十卷也 元曉述에 의거. 【교감】 疏二十卷 本十九卷今開第二 宗一述
21. 科三卷大科一卷 智昭述. 撰者: 智昭는 「교장총록」에楞伽經文外記二卷, 金光明經科三文三卷大科一卷, 金光明經辨正鈔七卷, 般若心經注一卷 등의 章疏가 있다. 【교감】 科三卷大科一卷 智昭述
27. 大疏注經 科□□卷 淨源刊定. 卷數: 「華嚴經疏科」, 晉水沙門淨源重刊(CBETA 電子佛典에 수록된 「洪武南藏」)은 총 20권이며 卷第6은 결본이다. 일본 靜嘉堂文庫에는 宋刊本 <권제3-6, 9, 11, 17>이 진존한다. 한편 「華嚴經疏科」와 관련된 淨源의 편찬서는 「華嚴科鈔略」과 「大經科文」 등이 『大覺國師文集』에 收錄되었지만 그 규모는 분명치 않다. 「洪武南藏」과 靜嘉堂文庫藏 宋刊本에 의거 20권으로 본다. 【교감】 大疏注經 科二十卷 淨源刊定
28. □一百卷 靈辨述. 章疏名 및 撰者名: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에 송광사 舊藏本の 권수, 권말 사진이 수록되었지만 현전하지 않고, 奎章閣藏(송광사 舊藏) 필사본 <권제51-56>, 東大寺藏 필사본 <권제3,14,16,17,18>, 高山寺藏 필사본 <권제10>이 현전한다. 송광사 舊藏本은 ‘花嚴經論 太原晉陽僧 靈辯撰’, 高山寺藏本 ‘華嚴經論(卷第十) 後魏釋 靈辨造’에 의거, 장소명은 「花嚴經論」, 撰者名은 간본과 「大方廣佛華嚴經疏演義鈔」 권8 ‘靈辯法師者

傳云後魏沙門靈辯太原普陽人’등의 자료에 의거 靈辯으로 판단한다. 【교감】 論一百卷 靈辯述

33. 法界觀一卷 從洩頌附 法順 俗姓杜氏世稱杜順 述. 章疏名: 『房山石經』 권28, ‘漩洩偈 杜順法師作’. 『大方廣佛華嚴經疏』 卷10, “漩洩者 水之漩流 洄洩之處 一甚深故 二迴轉故 三難渡故”, 德清, 『妙法蓮華經擊節』, “旋漩也 水之急流 最深而有洄旋 謂之漩洩 以當急流而力能迴流漩洩” 등에 의거 ‘旋’과 ‘漩’은 통용되나 『화엄경』과 『房山石經』의 원서명을 따른다. 44번 참조. 【교감】 法界觀一卷 漩洩頌附 法順

44. 釋漩洩頌一卷 惟勁述. 撰者名: 『房山石經』 권28, ‘釋花嚴漩洩偈 南嶽般舟道場比丘 惟勁釋’. 『宋高僧傳』 卷17에 ‘後唐南嶽般舟道場惟勁傳.’이 있다. 【교감】 釋漩洩頌一卷 惟勁述

47. 新注法界觀一卷 □氏注. 撰者名: 고려 의천의 『圓宗文類』 卷22 ‘新注法界觀序 呂參政 述’에 해당한다. 呂氏는 宋의 呂惠卿이다. 【교감】 新注法界觀一卷 呂氏注

76. 關脈一卷 已上 文超述. 章疏名: 『大華嚴關脈義』는 『教藏總錄』에는 “關脈一卷 已上 文超述”이라고 수록되어있고, 현재 法藏의 진찬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古聖教目錄』에는 法藏撰으로 『花嚴闕(關)脈義記』, 『花嚴關脈』이 수록되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華嚴關脈義記』 一卷은 『大正藏』 45冊(1879b)에 수록되어 있고, 그 저본은 鎌倉時代 凝然의 寫本으로 小野玄妙氏藏本으로 기록되어있다. 권말기록에는 “寫本云 永仁五年(丁酉)暮春三月五日 於東大寺戒壇院 爲實圓比丘書寫之 華嚴宗沙門 凝然 春秋五十八”이라고 하여, 凝然이 1297년(永仁 5) 東大寺 戒壇院에서 서사한 것이다. 이외에 燉煌本佛蘭西國民圖書館藏本(大正藏 권45, 1879a)이 있고, 金澤文庫에는 湛睿가 書寫한 『華嚴經關脈義記』가 현전한다.²¹⁾ 【교감】 關脈一卷 已上 文超述

21) 崔鉛植, “文超의著述と元曉思想受容の再檢討,” 『東アジア仏教研究』 11(2013)에서 李慧英(1994), 大竹晉(1999), 道津綾乃(2011) 등의 선행연구를 소개하였다. 한편 李慧英은 關脈義記 등이 749년을 전후하여 서사된 것으로 본다(李惠英(2000), 97-100). 박용진(2014. 8).

79. 廣釋義章一卷 光緣述. 撰者名: 「續高僧傳」 권21 慧光傳과 「華嚴懸談會玄記」 卷18에 의거, 범명과 관련하여 ‘光緣’의 명칭은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緣’은 ‘統’의 誤寫로 본다. 2번 참조. 【교감】 廣釋義章一卷 光統 述
94. 金師子章 注一卷 照昱述. 撰者名: 「金師子章」의 注解는 淸源止觀禪師, 昭信法燈大士, 四衢昭昱法師, 五臺承遷尊者의 4家が 있다. 淨源, 「金師子章雲間類解」, “其注解 現行于世者殆及四家 淸源止觀禪師注之於前 昭信法燈大士解之於後 近世有同號華藏者 四衢昭昱法師 五臺承遷尊者皆有述焉”. 淨源의 「金師子章雲間類解」의 기록을 따른다. 【교감】 金師子章 注一卷 昭昱述
104. 十二緣生解迷顯智成悲論一卷. 章疏名: 李通玄의 「解迷顯智成悲十明論」, 1권(『大正藏』 권45, 寬文九年刊大谷大學藏本, 宮內省圖書寮藏宋本)이 전존한다. 【교감】 十二緣生解迷顯智成悲論一卷
123. 發菩提心戒品一卷 澄觀述. 章疏名: 澄觀傳 등에 菩提心戒 관련 찬술은 잘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釋摩訶衍論通玄鈔」 卷4, “依淸涼菩提心戒儀八門中第六示其體相云”이라 하여 「菩提心戒儀」가 확인되나 상관성은 분명치 않다. 「안원사본」의 문내 교정기를 따른다. 【교감】 發菩提心戒本一卷 澄觀述
132. 開宗決疑三十卷. 章疏名: 「大方廣佛華嚴經疏」,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開宗分教 용어, 화엄경부에 속하는 점, 緣起의 찬술이 모두 화엄 관련인 것에 미루어 華嚴宗 開宗決疑로 추정한다. 또한 「안원사본」의 기록에 따른다. 【교감】 開宗決疑三十卷
135. 海印三昧論一卷 明晶述. 撰者名: 「海印三昧論」一卷 明晶所述(『大正藏』 45), 목록류는 「華嚴宗章疏并因明錄」, 「東域傳燈目錄」 所載. 【교감】 海印三昧論一卷 明晶述
142. 感應傳一卷 胡幽貞刊纂. 撰者名: 「大方廣佛華嚴經感應傳」 四明山大方廣無生居士胡幽貞刊纂(『大正藏』 권51)이 있고, 저본은 明曆元年刊大谷大學藏本, 宮內省圖書寮藏本이다. 【교감】 感應傳一卷 胡幽貞刊纂
150. 身土壽量指要一卷 已上 希仲述. 撰者名: 고려 의천(1055-1101)은 송의 希仲으로부터 集成身土壽量指要, 大疏鈔釋玄門義箋注, 科文 등을 받았다(『大

覺國師外集』卷四, “集成身土壽量指要 并將大疏鈔 釋玄門義 箋注於文下 并科文等 謹令僧馳去 切希檢納”). 神鑑大師 希仲은 義天과 교류한 宋僧 淨源의 문인이다. 『身土壽量指要』는 149번 『注十玄門』一卷과 함께 希仲의 찬술 서임을 알 수 있다. 【교감】 149. 注十玄門一卷, 身土壽量指要一卷 已上 希仲述

169. □□□□□□□□ 許康佐述. 章疏名 및 撰者名: 『釋門正統』 권8 法順傳, “翰林學士許康佐銘 師著法界觀門弘華嚴經 付雲華智儼”. 【교감】 杜順尊者碑一卷 許康佐述

5. 맺음말

『新編諸宗教藏總錄』은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동아시아의 불교장소를 수집하여 1090년에 편찬한 敎藏의 총목록이다. 『교장총록』에 대한 연구는 불교학, 역사학, 서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장총록』의 최고본인 일본 京都 高山寺藏 『안원사본』에 대한 정치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활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본고는 전본 최고본인 『안원사본』(1176)의 정본화를 위하여 이를 저본으로 正保寫本(1645), 元祿刊本(1693), 大正新修大藏經本(1928), 韓國佛敎全書(1979) 등 5종을 대교하고 교감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결론을 대신코자 한다.

『安元寫本』의 書誌와 校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현전 最古本은 일본 京都 고산사에 전존하는 安元 2년(1176) 明空의 필사본이다. 『安元寫本』은 明空의 필사기가 있고, 권제3의 論部 『順正理論』 이하의 필체는 다소 차이가 있어 다른 필사자를 상정할 수 있다. 또한 본문에는 다수의 교정 사례가 있는데, 誤字 校訂, 누락 추기, 기타 교정 기호가 활용되었으며, 본고에서는 121건의 교정기록을 정리하였다.

『正保寫本』은 『安元寫本』을 저본으로 正保 2년(1645)에 영변이 필사한 것이

다. 「正保寫本」은 1936년에 大屋徳城가 『新編諸宗教藏總錄』을 영인하여 출판하면서 말미에 附載한 것으로 축소판이다. 「정보사본」은 「安元寫本」의 교정 기록을 반영하는 한편 자체 교정을 행하였는데, 未判讀 표시 및 誤字 校訂, 誤記 위치 이동 校訂, 장소명 위치에 대한 것이다. 그 특징은 첫째, 「안원사본」을 충실히 전사하였고, 둘째, 「안원사본」의 교정기록을 반영한 필사, 셋째, 不明字나 誤脫字에 대해서는 문내에 교정 기록을 남기고 있다. 다만, 「안원사본」의 紙背에 기록된 章疏는 수록하지 않았다.

『新編諸宗教藏總錄』의 대교와 교감은 「安元寫本」과 「正保寫本」의 교정 기록, 그리고 「元祿刊本」 등 5종을 대교하고 교감하였다. 교감은 저본과 교본을 축자 대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교장총록」의 본문 내의 異同 및 字句의 錯落만 제시하고, 評注는 교본간 상위가 있는 약 90여 종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교감하였다.

본고는 「교장총록」의 현전 최고본인 「안원사본」을 定本化하기 위하여 諸本 對校를 통한 校勘을 행하였다. 「교장총록」의 수록 장소는 절반 이상이 현전하지 않아 결락이나 오류에 대한 교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失傳 자료의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보완이나 교감이 필요하다.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高山寺藏.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卷表紙 見出紙에 ‘重要文化財 02046 義天錄 卷第一二三 2권 高山寺’.

『新編諸宗教藏總錄』. 洛下書林 井上忠兵衛, 元祿 6년(1693).

『新編諸宗教藏總錄』. 「大正藏」 권55.

『新編諸宗教藏總錄』. 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1933.

『韓國佛教全書』 권4. 東國大學校出版部, 1979.

김두중.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탐구당, 1974.

박용진. 『義天 -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2011.

박용진. “高麗 義天撰 『新編諸宗教藏總錄』과 동아시아의 華嚴 章疏.” 『한국학 논총』 42(2014. 8). 161.

서수정.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의 佛敎書誌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4.

林惠憬.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 편찬과 그 의의.”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鄭駙謨. 『高麗佛典目錄研究』. 서울: 論叢刊行委員會, 1990.

崔鉛植. “文超의 著述と元曉思想受容の再檢討.” 『東アジア仏敎研究』 11(2013).

大屋徳城. 『高麗續藏雕造攷』. 日本 京都: 便利堂, 1936.

大屋徳城. 『新編諸宗教藏總錄』 解題. 日本 京都: 便利堂, 1936.

<별표 1> 『新編諸宗教藏總錄』 『安元寫本』의 校訂 기록

連番	章疏名	校訂記	校訂內容
1	新編諸宗教藏總錄序 私祕 敘而□□ 後有所獲 亦欲隨而錄之 脫或將來編次函裘 與三藏正文 垂之無窮	敘:敘 裘:裘	地脚: 不明字 追記
2	高麗沙門義天錄 此是□本俟後重廣如有漏略觀者恕之	此:此	字右: 不明字 追記
3	大華嚴經 疏八卷(或四卷)(慧遠述辯相續修)	辯:辯	字上: 不明字 追記
4	搜玄記五卷 智儼述	搜:搜	天頭: 不明字 追記
5	隨疏演義鈔四十卷(或開爲六十卷徑山寫本八十卷)澄觀述	山	字間: 闕字 追記
6	略注經一百卷(賢昱略清涼大疏注於經下)	昱:昱 移清涼大疏注於經下	昱字右: 不明字 追記 墨線削除:[移清涼大疏注於經下]
7	大不思議論一百卷(前分四十卷疏通訖餘未見)德素述	疏:流 訖:訖	字下: 誤字 교정 訖天頭: 不明字 追記
8	玄鏡議記二卷科一卷 德素述	章疏追記	漏落 追記: 界線 上
9	符真鈔四卷 元智述	真:真	天頭: 誤字 교정
10	釋旋液頌一卷 惟勤述	旋:旋	天頭: 不明字 追記
11	略法界觀手記一卷	觀手	字右: 不明字 追記
12	一相觀門三根判位章一卷	章:章	字右: 不明字 追記
13	疏鈔補解一卷科一卷 淨源述	解	字右: 闕字 追記
14	三聖圓融觀一卷	觀	字右: 闕字 追記
15	廣釋義章一卷 光緣述	緣:緣	字下: 不明字 追記
16	十玄章一卷(又有一本題云十玄無導義者疑是後人所述)	果:導	字右: 誤字 교정
17	策林一卷	策:策	天頭: 不明字 追記
18	注一卷 照昱述	昱:昱	字右: 不明字 追記
19	略策一卷 澄觀述	策:策	天頭: 不明字 追記
20	錦冠鈔四卷(或二卷) 傳奧述	冠:冠	天頭: 不明字 追記
21	發菩提心戒品一卷 澄觀述	品:本	字右: 誤字 교정
22	鈔一卷科一卷 已上 從朗述	科:科	天頭: 不明字 追記
23	真流還源樂圖一卷 已上 緣起述	真:真	天頭: 不明字 追記
24	纂靈記五卷 慧苑述	纂:纂	天頭: 不明字 追記
25	感應傳一卷 胡幽貞刊纂	胡:胡, 纂:纂	字右: 不明字 追記
26	身土說一卷	土:土	字右: 誤字 교정
27	□□□□□□ 許康估述	估:佐	地脚: 誤字 교정
28	□□□□□一卷 回濟述	回:回	地脚 不明字 追記

<增註 2> 『新編諸宗教藏總錄』對校 吳 校勘

연번	章疏名	校勘記
總錄序	新編諸宗教藏總錄序 □□□□之後 葉書繼至 翻譯流通者 無代	□□□□:正「□□□□」,元,大,韓「漢明夢感」,文「昔永平」,案「昔永平」
	無之 □□貞觀 經論大備 □□□聖之教	□□:正「□□」,元,大,韓「而及」,文「爰及」,案「爰及」 □□□:正「□□□」,元,大,韓「絲是西」,文「絲是西」,案「絲是西」
	霏然□□□ 自聳道真道安 至于□□宣律	□□□:正「莫□也」,元,大,韓「莫禦也」,案「莫禦也」 □□:正「□□」,元,大,韓「明佺」,文「明佺」,案「明佺」
	師 各著目錄 謂之晉錄魏錄等 然於同本異	各著:正「各着」,元,大,韓「各著」,文,案「各著」
	出 舊目新名 多□□□ 眞偽相亂 或一經爲	□□□:正「□□□」,元,大,韓「惑異途」,文「惑其文」,案「惑其文」
	兩本 或支品爲別翻 四十餘家 紛然久矣開	紛:正「紛」,元,大,韓「紛」,文「紛」,案「紛」
	元中 始有大法師 厥□智□ □落□□□□	厥□智□□落□□□□:正「厥方智昇刊落□□□簡」,元,大,韓「厥號智昇刊落訛謬刪簡」,文「厥號智昇刊落訛謬刪簡」,案「厥號智昇刊落訛謬刪簡」
	重複 總成一書 曰開元釋教錄 凡二十卷 最	成:正「成」,元,大,韓「成」,文「成」,案「成」
	爲釋要 議者□□ 經法之譜 無出昇之右	□□:正「□□」,元,大,韓「以爲」,文「以爲」,案「以爲」
	矣 住持遺教□□大焉 予□竊謂 經論雖備 而	□□大:正「□□□」,元,大,韓「莫大」,文「功莫大」,案「功莫大」 予□竊謂:正「予年竊謂」,元,大,韓「予嘗竊謂」,文,案「予嘗竊謂」
	章疏或廢 則流衍無由矣 輒效昇公議法之	
	志 □□教迹以爲己任 孜孜不捨 僅二十載	□□教迹:正「□□教迹」,元,大,韓「搜訪教迹」,文,案「搜訪教迹」 捨:正「舍」,元,大,韓「捨」,文,案「捨」
	于茲矣 今以□得新舊製撰諸宗義章 不敢	□:正「□」,元,大,韓「所」,案「所」 義:正「我」,元,大,韓「義」,案「義」
	私祕 敘而□□ 後有所獲 亦欲隨而錄之 脫	敘而□□:正「敘而出」,元,大,韓「敘而出之」,文,案「敘而出之」
	或將來編次函帙 與三藏正文 垂之無窮 則	帙:正「裘」,元「袂」,大,韓「帙」,文,案「帙」
	吾願畢矣 時後高麗十三葉 在宥之八年歲	
	次庚午八月初八日 海東傳華嚴大教沙門	
	義天敘	叙:正「叙」,元,大,韓「敘」,文「叙」,案「叙」
	新編諸宗教藏總錄卷第□	□:正,元,大,韓「一」,案「一」
	高麗沙門義天錄 此是□本俟後重廣如有漏略觀者恕之 海東有本見行錄上	□:正「○」,元,大,韓「草」,案「草」
1	大華嚴經 疏十卷	
2	又略疏四卷 已上慧光 世稱□緣 述	□緣:正「羗」,元,大,韓「光緣」,案「光統」

연번	章疏名	校勘記
3	疏八卷(或四卷)(慧遠述辯相續修)	辯:正,元,大,韓「辯」,案「辯」
4	疏二十二卷 智正述	
5	搜玄記五卷 智儼述	智儼:正「覺」,元,大,韓「智儼」
6	探玄記二十卷	
7	略疏□□卷 已上 法藏述	□□:正,元,大,韓「十二」,案「十二」
8	刊定記二十八卷 慧苑述	二十八:正「二十八」,元「二十」,大「二十」,韓「二十八」,案「二十八」
9	刊定記纂釋二十□卷(或十三卷)(法洗創□正覺再修)	□:正「六」,元,大,韓「一」,案「六」 □:正「覺」,元,大「造」,韓「覺」,案「作」
10	疏二十卷(本十九卷今□第二) 宗一述	□:正「用」,元,大「開」,韓「金□」,案「開」
11	疏三十一卷 法銑述	
12	疏三十卷 神秀述	
13	疏二十卷(或開爲四十卷)	
14	科七卷 已上 澄觀述	
15	科二十卷大科一卷 善來排定	
16	隨疏演義鈔四十卷(或開爲六十卷徑山寫本八十卷)澄觀述	爲:正「九」,元,大,韓「爲」,案「爲」
17	演義集玄記六卷	
18	演義逐難科一卷 已上 道弼述	
19	玄談鈔逐難科□卷 思孝述	□:正「覺」,元,大,韓「一」,案「一」
20	貞元疏十卷 澄觀述	
21	科三卷大科一卷 智昭述	智昭:正「知昭」,元,大,韓「智昭」,案「智昭」
22	綸貫十五卷 宗密述	
23	疏十卷(本是八卷今開第五卷并宗要均作十卷也) 元曉述	
24	古跡記十卷(或五卷) 太賢述	
25	略注經一百卷(賢昱略清涼大疏注於經下)	昱:正「昱」,元,大,韓「昱」,案「昱」
26	大疏注經一百二十卷(淨源移清涼大疏注於經下)	
27	科□□卷 淨源刊定	□□:正,元,大「二十」,韓「□□」,案「二十」
28	□一百卷 靈辨述	□:正,元,大,韓「論」,案「論」 辨:正,元,大,韓「辨」,案「辯」
29	論四十卷 李通玄述	
30	合論一百二十卷(志寧將通玄論注於經下)	通:正「遠」,元,大,韓「通」,案「通」
31	合論音義十二卷 恒遂集	恒:正「桓」,元,大,韓「恒」,案「恒」
32	大不思議論一百卷(前分四十卷疏通餘詁未見)德素述	疏:下校「流」,正「流」,元,大,韓「流」,案「流」 詁:正「說」,元,大,韓「訖」,案「訖」
33	法界觀一卷(從液頌附) 法順(俗姓杜氏世稱杜順)述	從:正「從」,元,大「旋」,韓「從」,案「漩」
34	法界玄鏡一卷 澄觀述	
35	玄鏡議記二卷科一卷 德素述	
36	注法界觀門一卷 宗密注	

연번	章疏名	校勘記
37	鈔四卷科一卷 守眞述	
38	□要鈔三卷 從朗述	□:正,元,大「集」,韓「□」,案「集」
39	集解五卷 有朋述	
40	鈔四卷科一卷 洪鑑述	
41	助脩記二卷科一卷 淨源述	
42	符眞鈔四卷 元智述	眞:正,元,大「眞」,韓「眞」,案「眞」
43	摭要鈔四卷 遵式述	
44	釋旋洩頌一卷 惟勳述	旋:正「旋」,元,大「旋」,韓「從」,案「漩」 惟:正「惟」,元,大「惟」,韓「□」,案「惟」
45	略法界觀手記一卷	觀手:正,元,大「觀手」,韓「觀手」,案「觀手」
46	三觀宗記一卷 已上 有誠述	
47	新注法界觀一卷 □氏注	□:正,元,大「呂」,韓「□」,案「呂」
48	疏通教觀十門論一卷	
49	法界十大觀論一卷	
50	釋起入法界觀四法明門一卷	
51	一相觀門三根判位章一卷	章:正,元,大「章」,韓「章」,案「章」
52	普觀諸法相卽在入不思議門論一卷	
53	心佛道交論一卷 已上 曇雅述	
54	十門實相視一卷 杜順述	視:正「視」,元,大,韓「觀」,案「觀」
55	還源觀一卷 法藏述	
56	疏鈔補解一卷科一卷 淨源述	解:正「解」,元,大,韓「解」,案「解」
57	義綱一卷 可歸述	
58	三昧觀一卷	
59	普賢觀一卷	
60	色空觀一卷	
61	華藏世界海觀一卷 已上 法藏述	
62	華藏世界海主伴圖敘一卷 回濟述	回濟:正「濟回」,元,大,韓「回濟」,案「回濟」
63	華藏世界海圖一卷 處恒述	
64	法界義海二卷(或一卷) 法藏述	
65	科一卷 淨源述	
66	十門看法觀一卷 義想述	
67	刊定別章二卷 慧苑述	
68	妙理圓成觀三卷 神秀述	
69	三聖圓融觀一卷	觀:正「觀」,元,大,韓「觀」,案「觀」
70	五蘊觀一卷	
71	十二因緣觀一卷	
72	了義一卷(食肉有罪無罪附)	
73	心要一卷 已上 澄觀述	
74	注一卷 通義述	
75	自防遺忘集十卷	忘:正「忌」,元,大,韓「忘」,案「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對校와 校勘 研究

연번	章疏名	校勘記
76	關脈一卷 已上 文超述	關脈:正,元「關脈」,大「開脈」,韓「關脈」,案「關脈」
77	法界圖一卷 義想述	想:正「相」,元,大,韓「想」,案「想」
78	指歸兩卷 佛陀三藏述	
79	廣釋義章一卷 光緣述	緣:正「緣」,元,大,韓「緣」,案「統」
80	章門雜孔目四卷	
81	要義問答二卷(世云五十要問答是)	
82	十玄章一卷(又有一本題云十玄無果義者疑是後人所述)	疑是:正「疑是」,元,大「疑」,韓「疑是」,案「疑是」 果:正「導」,元,大,韓「礙」,案「導」
83	六相章一卷(三性章附) 已上 智儼述	
84	教義分齊三卷 法藏述	
85	科一卷 淨源述	
86	綱目章一卷	
87	指歸一卷	
88	策林一卷	策:正「策」,元,大,韓「策」,案「策」
89	華嚴雜章門一卷(三寶章流轉章法界緣起章圓音章法身章十世章玄義章)	
90	三寶別行記一卷	
91	金師子章一卷 已上 法藏述	
92	明鑑鈔二卷 祐田述	
93	注一卷 承遷述	
94	注一卷 照昱述	照:正「照」,元,大「昭」,韓「照」,案「昭」
95	雲間類解一卷科一卷 淨源述	
96	一道章一卷	
97	大乘觀行一卷 已上 元曉述	
98	九會章一卷 慧苑述	
99	略策一卷 澄觀述	策:正「策」,元,大,韓「策」,案「策」
100	修行次第決疑論四卷	弟:正「弟」,元,大「第」,韓「弟」,案「第」
101	會釋兩卷	
102	略釋一卷	
103	十門玄義一卷	
104	十二緣生解迷顯智成悲論一卷	迷:正,元「迷」,大「述」,韓「迷」,案「迷」
105	眼目論一卷 已上 李通玄述	
106	十門玄義一卷 亡名	
107	明難品疏一卷	
108	記一卷 已上 曇遷述	
109	入法界品鈔一卷 智嚴述	嚴:正「嚴」,元,大「儼」,韓「嚴」,案「儼」
110	入法界品鈔記一卷 義想述	
111	綱要三卷 澄觀述	
112	錦冠鈔四卷(或二卷) 傳奧述	冠:正,元,大,韓「冠」,案「冠」
113	經序別行崇福記一卷 紹誥述	

연번	章疏名	校勘記
114	三品別行疏二卷(問明淨行賢首是也)	
115	三品隨疏演義鈔五卷科一卷	
116	行願品別行疏一卷 已上 澄觀述	
117	隨疏義記六卷科一卷	
118	又隨疏記義三卷科一卷	
119	又記義二卷科一卷 已上 宗密述	
120	行願品別行疏二卷(仲希移本疏注於經下)	
121	釋義鈔四卷科一卷(宗密述仲希治定)	科:正「결」,元,大,韓「科」,案「科」
122	鈔六卷 從朗述	
123	發菩提心戒品一卷 澄觀述	品(右記本):正「本」,元,大,韓「本」,案「本」
124	淨行品別行疏一卷	
125	鈔一卷科一卷 已上 從朗述	科:正,元,大,韓「科」,案「科」
126	隨好光明品解一卷 王氏述	
127	修慈分疏二卷	
128	略鈔一卷科一卷 已上 思孝述	
129	要義問答二卷(僧傳云錐穴問答是) 智通述	
130	一乘問答二卷(僧傳云道身章是) 道身□ 安大宋僧史義湘傳 云或執筆書神 懷鉛札葉 抄如結集 錄似載言 如是義門 隨弟子爲目 如云道身章是也 或以處爲名 如云錐穴問答等云云 但以當時集者 未善文體 遂致章句鄙野 雜以方言或是大教濫觴 務在隨機耳 將來君子 宜加潤色	□:正「述」,元,大「述」,韓「□」,案「述」 安:正「安」,元,大「按」,韓「安」,案「按」 將來:正「時未」,元,大,韓「將來」,案「將來」
131	釋名章一卷 義融□	□:正,元,大「述」,韓「□」,案「述」
132	開宗決疑三十卷	宗:正「宗」,元「宗」,大「定」,韓「宗」,案「宗」
133	要決十二卷(或六卷)	
134	[土+貝]流還源樂圖一卷 已上 緣起述	流:正,元,大,韓「流」,案「流」 [土+貝]:正,元,大,韓「眞」,案「眞」
135	海印三昧論一卷 明晶述	晶:正,元「晶」,大「晶」,韓「晶」,案「晶」
136	要決六卷(或三卷) 梵如述	
137	佛名二卷	
138	梵語一卷	
139	音義一卷	
140	傳記五卷 已上 法藏述	
141	纂靈記五卷 慧苑述	纂:正「纂」,元,大,韓「纂」,案「纂」
142	感應傳一卷 胡幽貞刊纂	胡:正「胡」,元,大,韓「胡」,案「胡」 纂:正「纂」,元,大,韓「纂」,案「纂」
143	十地門答一卷 亡名	門:正「問」,元,大,韓「門」,案「問」
144	四十二字章法門一卷 處恒述	
145	身土說一卷	土:正「土」,元,大,韓「土」,案「土」
146	賢首宗百門決疑解一卷	
147	辨三義折實問一卷	

연번	章疏名	校勘記
148	答頂山十二問一卷 已上 善聰述	
149	注十玄門一卷	
150	身土壽量指要一卷 已上 希仲述	希仲:正「希仲」,元,大「仲希」,韓「希仲」,案「希仲」
151	答頂山十二問一卷 道璘述	
152	發菩提心戒本二卷 御製	
153	隨品讚十卷 御製	
154	隨品讚科一卷 志實述	
155	入法界品讚一卷 楊氏述	
156	禮文一卷 亡名	
157	禮文一卷 法燈述	
158	○○○○○ 道英述	○○○○○:正,元,大「十會讚一卷」,韓「○○○ ○○」,案「十會讚一卷」
159	○○○○○ 有誠述	○○○○○:正,元,大「九會禮一卷」,韓「○○○ ○○」,案「九會禮一卷」
160	禮讚文一卷 永安述	
161	禮讚文一卷 處恒述	
162	禮讚文一卷 鑒仁述	
163	圓教修證儀一卷 處恒述	
164	入法界品禮讚一卷 善聰述	
165	普賢行願懺儀一卷	
166	賢首國師禮讚文一卷 已上 淨源述	
167	清涼國師禮讚文一卷 曇慧述	
168	浮石尊者禮讚文一卷 亡名	
169	○○○○○○○ 許康估述	○○○○○○○:正,元,大「杜順尊者碑一卷」,韓 「○○○○○○○」,案「杜順尊者碑一卷」 估:正「問」,元,大,韓「佐」,案「佐」
170	○○○○○一卷 回濟述	○○○○○:正,元,大「儼尊者行狀」,韓「○○○ ○○」,案「儼尊者行狀」
171	賢首碑一卷 閻朝隱述	
172	賢首傳一卷	
173	浮石尊者傳一卷 已上 崔致遠述	
174	清涼行狀一卷 清[沔-丐+丐]述	
175	清涼碑文一卷(與行狀亦有不同待勘) 裴休述	
176	寄海東華嚴大德書一卷 賢首	賢首:正「圭峰上清涼」,元,大,韓「賢首」,案「賢首」
177	修門人書一卷 圭峰上清涼	門:正「內」,元,大,韓「門」,案「門」 圭峰上清涼:正「賢首」,元,大,韓「圭峰上清涼」, 案「圭峰上清涼」

